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지금부터는 속도...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완전한 회복 위해 최선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금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제2의 정주영..두선산업 정군영 회장의 사부곡(思婦曲)



두선 산업 정군영 회장은 안산의 공장에 와서도 서울 가산동 회사에서도 아내가 아파서 요양하던 시골(여주)집에 혼자 있어도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눈시울은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린다.

‘당신 가신지 이년 넘어 3년째 병장고 한켠에 뒹굴어 다니는 가루음식 한 봉지~ 배 곡을까 걱정돼~ 당신 마음들이 한 봉지는 정 회장이 3년 전 작고한 아내(명기정)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아낸 시(詩)다.’

칠순(七旬)을 바라보는 두선산업 정군영 명예 회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열네살의 나이에 고향 흥성을 떠나 집안 당숙이 운영하는 박스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또 아내를 만나 기업을 일구면서 공장(공돌이), 남편, 아버지, 사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온 삶을 기억해내며 그 속에서 또 아내를 만난다.

정군영 회장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내의 이름으로 ‘명기정장학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제도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소개받아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아내가 살아생전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 행했던 베품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제2의 정주영’ ‘리틀 정주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우는 정 회장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없이 맨손으로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일구어 왔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건강식품 D사에 박스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두선산업은 특수포장에 관한 다양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두선산업 창업..대표는 아내 이름으로

두선산업은 정 회장이 초등학교 졸업 후 박스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단초가 돼 지금의 규모로 성장했다. 두선산업은 1984년 광명시 하안동에서 가정 부업으

로 시작했다. 정 회장은 아내가 주문 받은 물량을 밤새 작업해 놓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배달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작업할 물량을 가져와 일을 했다.

정 회장은 1989년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직접 나가서 사업자를 내고 자기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정 회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해고였다. 정 회장은 항의도 했다. 결국 회사가 요구하는 제안을 받아들여 아내와 함께 내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 대표는 아내의 이름으로 했다. 주변에서는 부도를 의심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두선산업은 2000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6년 안산시 공장을 매입하며 새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이후 공장을 안산으로 옮기면서 성장하고 있다.

무모한 도전 베트남 공장 설립.. ‘두선왕국’

두선산업은 지난 2013년 ‘두선베트남 해외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정군영 회장의 장남인 정우혁 대표가 베트남 법인을 총괄하고 있다.

정군영 회장의 베트남 진출은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당시 삼성을 제외한 대한민국 그 어떤 기업도 베트남 진출을 꺼려했다. 정 회장은 무작정 베트남으로 달려가 공장 지을 땅 5천 평을 임대했다. 정 회장이 임대한 땅은 논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장 지을 땅을 임대한 정 회장은 그날부터 베트남 삼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무작정 찾아오는 정 회장을 반겨줄리 없는 삼성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정 회장은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에 인쇄된 거북선으로 영국에서 돈을 빌려와 공장을 지은 일화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의 움직임이 보였다. 도대체 누군지 알아본다며 공장부지를 방문했다. 당시 부지만 임대하고 말뚝으로 표시만 해놓아 삼성에서 나온 상무가 놀라며 “삼성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거래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화를 냈다는 귀뜸이다.

사실 정 회장은 삼성에 줄을 댈 인맥도 경력이 없었다. 정 회장은 국내에서 인정한 박스기술을 어필했다. 삼성은 “우리가 일을 준다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없다”는 조언에도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로 결국 삼성의 1차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베트남 공장은 10만 여평에 1천여 명의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두선산업 공장을 현지인들은 ‘두선왕국’으로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베트남 사업에 정진하면서 아픈 아내를 돌보지 못한 미안함을 평생 간직하고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에 빛을 지고있다고 한다.

회사는 행복의 근원 ... 가족 같은 직원

정 회장은 “회사는 가족의 행복을 주는 근원이다. 자가용에 아내를 옆에 태우고 자녀를 뒤에 태우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회사가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항상 말한다. 정 회장의 경영철학은 ‘모두가 행복한 회사’다. 정 회장은 직원 복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 감자, 쌀, 옥수수 등 계절마다 계절 농산물을 직원들에게 선물한다. 정군영 회장은 “정주영 회장에게 배운 직원에 대한 배려”라고 말한다.

아내에게 대한 사랑과 그리움. 직원들에게 늘 다정한 정 회장은 일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깐깐하다. 두선산업 정상혁 대표는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러나 일과 관련 잘못을 하면 가차 없이 지적하고 혼을 내신다”며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소개했다.

정 회장은 3년 전 작고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정 회장은 매우 수요일 안산공장으로 출근한다. 출근하면 회의에도 참석하고 특히 공장라인

에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박스를 접는다는 것.

아이를 사랑했던 아내 .. ‘명기정 장학재단’ 설립
정군영 회장은 “아내는 살아생전에 아이를 좋아하고 주변의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조건 없이 도와줬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안고, 무릎에 앉히고 달래주며 장애아 사랑이 남달랐다”고 말한다.

정 회장은 아내의 이름으로 ‘명기정 장학재단’을 만들어 아내가 살아서 못다 이룬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엄마(명기정)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은 큰 딸인 두선코스맥틱 정정옥 대표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장학회 운영도 정 대표가 하고 있다.

정정옥 대표는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아이들, 장애우, 부모가 있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기정 장학재단’의 취지”라며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바치는 사부곡(思婦曲)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정군영 회장은 아내가 아프면서 요양을 위해 마련한 여주의 시골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수령이 100년쯤 돼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는 정 회장의 시골집 뒷뜰에는 향암에 좋은 식물과 나무들이 빼곡하다. 정 회장은 아내를 생각하며 매일 물을 주며 아내를 그리다.

치료 후 돌아오겠다던 아내는 재발 후 입원하면서 끝내 여주 시골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정 회장은 아내와 함께 쓰던 방과 침대가 편하며, 아내와 함께 생활했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골집 거실 창문틀에 놓여있는 20여권의 ‘향암’ 관련 책자가 정 회장의 아내를 위한 정성과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정 회장은 오늘도 시를 통해 아내를 만난다고 한다.

최재은기자

[칼럼]여당주도의 언론중재법 탄압의 전주곡인가

최근 한국 ABC협회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나 중앙언론조사 유료부수에 대한 대국민 불신의 지적은 올 것이 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개정안의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조항은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언론의 후퇴는 불보듯 자명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만큼 언론보도에 대한 부담을 높여준 셈이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침해는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통제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어두운 한국 언론의 미래는 암흑처럼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언론의 오만함과 자질부족, 검종되지 못한 가짜뉴스의 남발 등 유종의 목적이 신뢰를 깎아 먹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잠재 한명이 있다고 치안을 포기할 것인가.

경찰의 자부심으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절대 다수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면 과연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거나 레임덕이 올만하면 별 법안이 다 효용을 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 그랬을까.

헌대판 분서갱유라 불리는 5인 미만 미디어 등록 불가 방침을 내리자 지역 인터넷뉴스는 물론 10년 이상씩 유지해 오던 인터넷뉴스들이 대거 폐간을 신청했다. 정작 가짜뉴스는 SNS 상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 유통된다.

심지어 보이소피시나 음란 사이트, 도박, 가상화폐나 불법 사행성 내용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홍수처럼 쏟아져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수속무척 피해자가 양산되어도 사이버 수사관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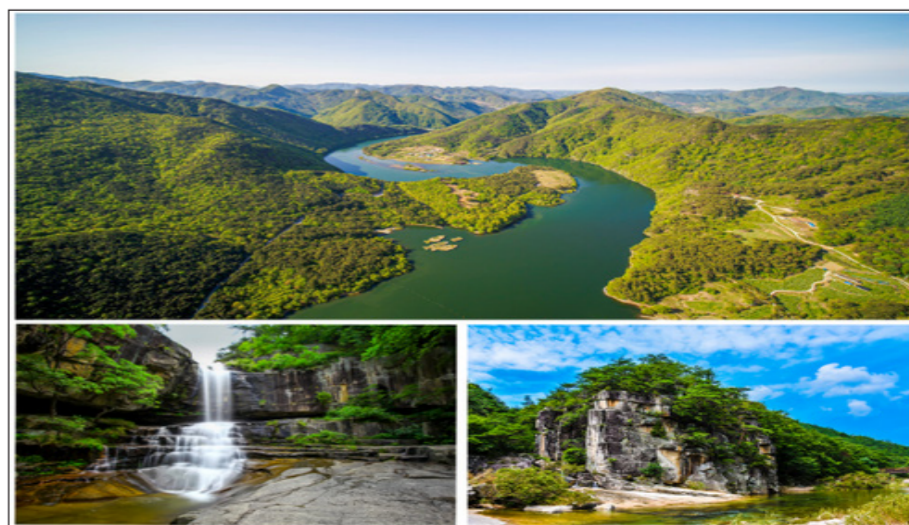
가짜뉴스 잡는답시고 엉뚱한 중소 언론사들을 휩쓸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끄럽다고 입을 막아 버리면 정작 필요한 노래 소리나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까지 안 들리게 된다.

특히 내 입맛에 안 맞는 소리를 일방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로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말로 참으로 민주국가의 근간을 여행하는 처사로 치부될 수 있으며 결국 결과해지의 길을 걷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똘은 칼에 내가 다칠 수 있다. 어느 분야든 법을 개정하려면 그 분야의 경험자들에게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게 맞는 것이다.

덕암/김근식

괴산군, 테마-체류형 관광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 연다



변광용 거제시장, 가덕신공항 특위 1차 회의 참석해 조속추진 의지 다져

변 시장,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거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29일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송영길 당대표와 김영배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최인호 의원 등과 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및 부산시,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번 특위 1차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송 위원장을 비롯 김영배 부위원장, 최인호 간사, 변광용 시장, 박영순, 김해영, 최백용, 강윤경, 박무성, 박영미, 홍순현, 박재범, 강준석, 서은숙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29일 오후 3시, 부산항공사 신항사업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허태성 (취유신 부시장)이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사항을 브리핑했다.

이어진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으며, 토론이 종료된 후 참석자들은 부산신항만 내 소형선 부두 선착장으로 이동해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들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화합, 남해안 시대의 주요 거점이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덕도는 부산시에 속해 있지만, 거제시와 거가대교로 이어져 있다. 이 때문에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관광산업 활성화 등 잠재된 경기 회복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변광용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의 입지 결정과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가덕도를 찾는 이낙연 전 당 대표에게도 빠른 추진을 건의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거제시는 현재 KTX 건설에 따른 발전 방안과 더불어 가덕 신공항 연계 에어시티 조성 관련 신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강영훈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모든 시민에게

차별없는재난지원금지급건의



구리시는 27일 고양시·파주시·광명시·안성시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되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의 모든 불만을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안승남 시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 19 대유행에 개인의 이익을 접어두고 침착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 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영웅이다. 건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을 희생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별을 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리시의 경우 약 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이다.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5개 시군은 이에 발맞춰 경기도의 ‘발빠른 결단’을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신축현장 점검

이환주 시장은 29일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신축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도동동 주민들과 관련부서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하며 공사 진행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남원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년여가복지 수요 증가 등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이다.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고죽동 66-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96.36㎡규모로 올해 3월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진행됐다.

이곳에는 체력단련장, 탁구장, 당구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하여,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이환주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남은 기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최기문 영천시장,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방문

최 시장 日 '청년농업인이 영천 농업의 미래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 29일 대창면 강회리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 성장기(남, 36세) 씨 농장을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업·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미래 농업인력의 감소와 청년층의 귀농 증가에 따라 청년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영천시 4-H 회원들은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기반을 마련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하여 토론했다.

최기문 시장은 “청년농업인들의 지역 유입과 영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듣고자 영농현장을 방문했다”며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농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농업에 활력 제공하는 등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영천 농업의 미래다”고 강조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등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평택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 집 직: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인물 추천으로 공기업 신뢰 회복해야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견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은 이번 인사특위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시계획·부동산 분야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기대는 실망으로 우려는 현실로 여지없이 바뀌고 말았다.

김현아 후보자의 미흡한 자질은 이미 후보자 추천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는 대한건설협회가 출연한 민간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등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고양시에 출마했던 지난 총선에서는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 행동에 앞장서는 등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책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왔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수장으로 4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집 마련 쉽던 시대적 특혜'라고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는 김 후보자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 것은 비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LH 부동산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불성실한 감사와 의정활동으로 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기보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일관했던 무책임함은 또 어떠한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폄하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서민의 주거복지보다 비정상적인 시장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 했던 김 후보자가 돌연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읊소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현아 후보자를 둘러싼 경솔한 언행과 도덕성 논란 또한 금명간의 일이 아니다. 김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던 막말 정치의 장본인이다. 이 밖에도 불성실한 재산신고·소득신고,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롯해서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는 의원실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LH공사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도덕성, 투명성의 사회적 잣대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준에 부응하면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주거대책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 대신 정치적 목적과 편향성에 기대어 수준이하의 자질을 가진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주요 기관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했다.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서울주



택공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위의 '부적격' 판단은 후보자의 그간 언행과 언행, 부족한 능력과 미흡한 자질, 부적절한 가치관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모니를 부리는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경영 능력,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하루빨리 추천할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광수/기자

충청남도의회 충남119와 손을 맞잡고 희망의문을 열다

'가치가유 충남119' 기부자로 도의원들 동참, 약정서 전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가 시행하는 '가치가유 충남119' 기부행렬에 동참하며 29일 도의회에서 약정서를 전달했다.

'가치가유 충남119'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일반 도민들도 참여하여 매일 119원씩 모은 기금으로 화재 등 재난과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교육위원회 양금봉(서천) 도의원님께서 지난 6월 실명 및 안구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쌍둥이 형제(서천군 문산읍 거주)에게 소방본부에서 성금과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어려운 도민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호 본부장은 "이번에 도의회의원님들의 동참으로 우리 충남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정 많은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면서 "경제적 지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정성이 더 큰 힘이 돼서 재난과 질병으로 실의에 빠진 분들



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양승조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문화체육부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가치가유 충남119'기부에 동참한 이후, 많은 기관·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기부약정이 이어지며, 충남의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방본부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7월 현재 총 43가구에 7천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8월 12일에는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와 협업 추진하는 '119 희망의 집짓기' 사업의 제1호 주택이 완공되어 아산시에서 입주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의장은 도민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한 충남소방본부의 '가치가유 충남119'사업이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심어주었던 희망과 꿈이 많은 분들의 정성이 더 큰 힘이 돼서 재난과 질병으로 실의에 빠진 분들

고정화/기자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성금 전달 자리 마련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 3백만원 기탁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7월 29일, 의장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지구회장 최민용)에서 코로

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써달라며, 특별성금 기부의를 김하용 의장에게 밝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회장 강기철)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민용 지구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지역 청년들이 특별성금 모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하용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청년회의소의 따뜻한 온정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도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울산시의회, 사회적경제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사전 간담회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발전 연구회'(회장 김미형 의원)가 28일 오후 2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사회적경제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발전 연구회는 울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이번 간담회 개최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방안 마련 등 실태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관광 상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공동체,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인업진흥원, 방어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아름다운 방어진협동조합, 울산시 사회적경제담당 등이 참석해 울산 지역 사회적경제 및 생태관광 상품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운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황 파악 및 운영실태 진단을 사전 조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구분야 중에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의 체계성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방안의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생태적 관광상품화 등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이승호 이사는 "울산의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한국인업진흥원 박세진 그루메니저는 "울산지역 내에 환경 관련 생태·환경체험 등 숨어 있는 아이টে를 찾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외되는 사회적기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형 의원(연구회 회장)은 "울산형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생태관광상품화로 발전시키는데 적은 예산의 용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용역을 시초로 사회적경제 상품화와 지역생태관광을 연계하여 향후 울산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 본 의정활동' 제1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다양한 역할과 의정활동을 시민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일반부(만 19세 이상)와 중·고등학생부 중 택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6명 이하)로 지원 가능하며, 팀별 최대 3편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출품기간은 8월 2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총 2개월이고,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총 상금 규모는 1천만 원으로, 출품작에 대한 네티즌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식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서산시의회, 폭염 대비 양계·양식 농어가 현장 방문

농어가 폭염 대책 논의... "사후약방문식 대처 없어야"

서산시의회가 지난 28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석면의 양계농가와 성연면의 양계농가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의원들은 천수만 연안에 27도를 웃도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부석면 창리에 소재한 가두리양식 어가를 방문해 이종민 시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어종의 사육상태 및 고수온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산소공급기와 차광막 등을 점검한 뒤 어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고수온 현상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고수온 적합 어종 대체 △안면도 연륙교 준설을 통한 해류순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성연면 갈현리에 위치한 양계농가를 방문해 김윤규 시 축산과장으로부터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받



고 육계 사육관리 현황과 폭염피해 예방 시설 등을 살펴본 뒤 농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농가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조절장치, 면역증강제, 콜리페드 등의 적기 지원과 농어가 폭염 대응요령, 기상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가축재해보험 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희 의장은 "농어가 폭염 대비 지원 시책이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제1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2021.8.2(월) ~ 2021.9.30(목)

- 공모주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자유 주제
- 공모부문
5만 이내의 자유 형식 영상물
- 공모자격
시민 누구나
- 공모일정
접수: 2021. 8. 2(월) ~ 2021. 9. 30(목)
- 시상내역
최우수상 1,000만원
- 접수방법
서울시의회(충무로5가, 개관청사3층)에서, 홈페이지
- 문의사항
서울시의회 유튜브 공모전 운영사무국 TEL: 02-853-4323



재활용품 ‘착한 분리배출’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인천 서구에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유가 보상해주는 착한 가게가 9월 문을 연다.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28일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스마트 순환자원회수센터인 '서로e음가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서구를 비롯해 ㈜에코투게더, ㈜동양환경, 신현원마을관리소,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클린서구환경사랑운동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서구를 비롯해 ㈜에코투게더, ㈜동양환경, 신현원마을관리소,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클린서구환경사랑운동본부가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로e음가게'는 주민들이 올바르게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 보상을 시행해주는 가정수거시설로,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초기 단계부터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협약을 통해 서구는 사업정책 지원을, ㈜에코투게더는 플랫폼(앱) 구축 및 유가보상 시행을 맡

게 된다. 또한, ㈜동양환경은 재활용품 수거·처리, 신현원마을마을관리소는 운영장소 지원,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클린서구환경사랑운동본부는 자원봉사 인력 지원을 하게 된다. 재활용품 유가보상은 주민이 '비우고-헹구고-재대로 분리한' 재활용품을 '서로e음가게'로 가져오면 해당주민 휴대폰에 예코투게더 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 달 후 현금이나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가보상 가능 품목: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서구는 '서로e음가게'를 신현원마을마을관리소(새오개로 48번길 22-1)에서 오는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범운영 할 예정이며, 향후 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가게'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광진구의회, '광진혁신포럼' 광진구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광진구의회, '광진혁신포럼' 광진구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혁신포럼(대표 연구위원 장경희)'이 7월 26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광진복지재단, 광진정보도서관과 '광진구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중간 주민 삶과 직결된 도시 생활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광진혁신포럼은 급격한 디지털화가 낳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정보복지 실현을 위해 MOU를 추진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광진혁신포럼 장경희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희근 위원, 박성연 위원, 박순복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진복지재단 구혜영 이사장, 광진정보도서관 오지은 관장이 함께했다. 협약식에서, 광진혁신포럼과 광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진구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배경, 환경 및 실태 분

석, 해외 사례, 광진구에 맞춘 제안까지 심도 있는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순복 위원은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 지도 제작과 홈페이지 개선을 제안했고, 장경희 대표위원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요청했으며, 박성연 위원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김희근 위원은 복지관과 협업을 통한 유기적 사업 연계를 제안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장경희 대표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진행된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로 인한 불안감과 소외감이라는 반작용도 낳았다"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놓이는 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혁신포럼은 7월 20일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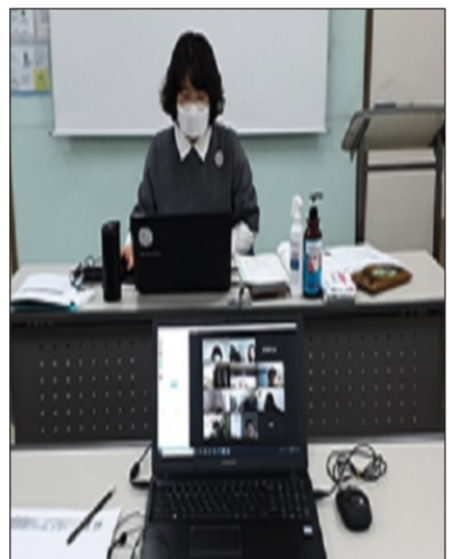


레연구를 위해 '초소책방'과 '청운문학도서관'을 다녀왔다. 청와대 방호를 위해 사용되던 경찰초소를 리모델링한 초소책방에서는 초소외벽, 기름 탱크 등 지형지물을 보존한 '역사성'과 사방에서 도심 전망이 가능한 '구조적 미'에 관심을 가졌고, 산자락 기슭에 위치한 종로구 최초 한옥공공도서관인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독서모임 장소 등 주민 이용 공간과 창작활동이 가능한 작가집필실이 공존하도록 구성된 '학

장성'과 기획전시, 인문학 강연, 아이들을 위한 문화 체험활동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성'을 유의 깊게 살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아이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확보는 도시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광진구에 최적화된 친환경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동작구, 8월부터 경력단절여성 대상 온라인 전문셀러 양성 교육



동작구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문셀러 1인 창업"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말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에 동작구와 동작50플러스센터가 컨소시엄을 이뤄 응모한 사업이 선정되며,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전문셀러는 물건을 직접 제조하거나 대량 구입해서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도매상 역할을 하는 도매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상품 중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선별해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초기 자본 없이

자신만의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구는 40대~50대 경력단절 여성 60명을 1인 전문셀러로 양성해 스스로 창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으로, ▲오픈마켓 운영 및 SNS 홍보기법 등 80시간 이상 무료 교육 ▲5개월간 오픈마켓 운영도우미 프로그램 무료제공 ▲전문셀러 관련 교재 제공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 멘토링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8월 9일부터 12월 초까지 30명씩 2개팀으로 나눠 18주 과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전문셀러 양성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은 동작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다음달 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체적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의 사항은 동작50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더욱 커 이커머스 시장에서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해 창업을 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구로구, 2022학년도 온라인 대입 수시 설명회 마련



"복잡한 수시 제도, 단번에 정리한다!" 구로구가 2022학년도 온라인 대입 수시설명회를 마련한다. 구로구는 "수험생들이 체계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시 전형과 합격 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입 수시설명회를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대입 수시설명회는 사전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청을 원하는 이는 8월 3일 오전 9시 이후 구로구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이취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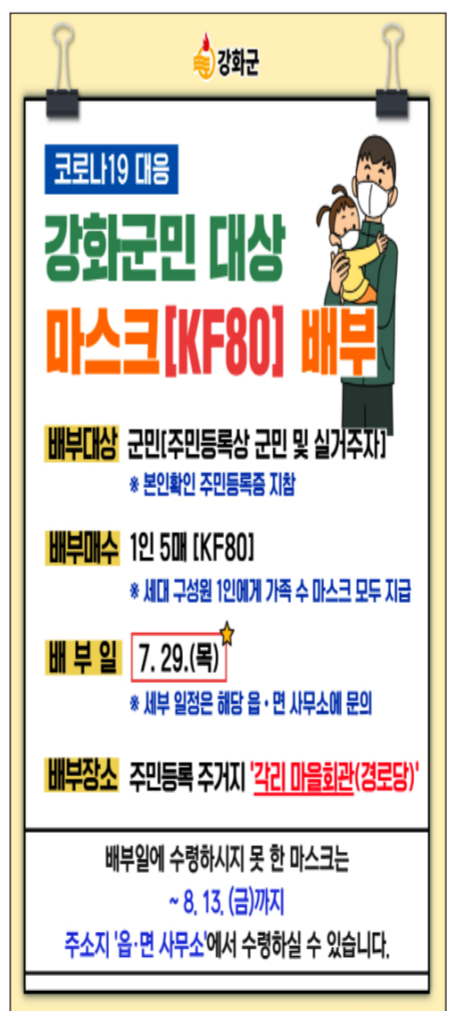
강사로 나서 ▲상반기 수능 모의평가 결과 분석 ▲대학별 수시전형 요강 분석 ▲주요 대학 지원 전략 ▲수시 대학별 고사 학습 전략 등에 대해 강의를 펼친다. 참여자를 위한 수시 전략 자료집도 제공된다. 자료집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복잡한 입시제도 내에서 수험생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며 "이번 수시설명회가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강화군, 코로나19 대응 전 군민 마스크 배부

K F 8 0 마스크 1인 5매 배부

강화군은 전 군민에게 마스크(KF80)를 5매씩 주소지 마을회관에서 오는 29일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가 다음달 8일까지 연장이 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배부하는 마스크는 무더위에 상대적으로 편한 KF80 마스크이다.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한 마스크는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강화군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도 금지했다. 또한, 방역강화를 위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정체육시설 내 물놀이장 등 개장을 연기하고, 불은·신정 축구장, 실내가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강화문화관, 강화미술관, 공동체비점, 강화농경문화관 등은 휴관했다. 관광시설인 함허동천야영장, 덕산캠핑장, 평화전망대, 화문석문화관, 전쟁박물관, 역사·자연사박물관, 석목도 미네랄온천, 실감형미래체험관 등은 운영이 중단됐다. 유천호 군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질없는 방역관리를 신뢰받는 군민행정을 구현하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스스로 만드는 지역축제! 신촌 대표축제를 내 손으로~

서대문구, '대학생·청년 문화기획단(밀레니얼공작소)' 5기 모집

서대문구가 지속가능한 문화적 지역거점 공간 조성 및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해 대학생·청년 문화기획단(밀레니얼공작소) 5기 '신촌축제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 가운데 문화기획자를 꿈꾸고 문화기획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신촌, 파랑고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8월 16일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선발 인원은 25명 내외로, 이들은 8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축제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듣고 워크숍과 조별모임, 멘토링에 참여하며 신촌축제(가칭)를 개최한다. 축제 관련 정책과 현장을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김미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윤성진 전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이재원 원주다이나믹 맨싱카니발 총감독, 강승진 춘천문화도시 센터장, 소홍삼 의정부예술의전당 분부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신촌축제학교를 수료하면 수료증과 관련 분야 취업 시 필요한 추천서



를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문화기획단 5기 활동을 통해 신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가들이 많이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경기도, '모두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하 강력 대처한다

경기도,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안 발표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안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유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 등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불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담회의에서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상황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파주시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임을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

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도민 홍보 활동이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강화방안이다.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가 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지·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정계곡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등 주말 특별점검

기간: 2021. 7. 31.(토)~8. 29.(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대상: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
점검자: 도 단장 행정2부지사 및 간부 공무원
위반시 조치사항: 불법행위 제발 및 방지 해당 시군 감사 실시, 계도 및 경고기간 없이 최고수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계곡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주요 유형

- 하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 평상 설치
- 그늘막 설치
- 파라솔 설치
- 하천 내 분수
- 물막이 시설 (교각, 방벽, 바위 등)

문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소년치안공동체 울타리' 선도 활동 전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총경 백남익)는, '21. 7. 29.(목) 17시부터 천안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천안동남경찰서·천안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개단체 20여명이 소그림으로 나누어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울타리 계도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치안공동체 울타리'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고, 계도하기 위해 천안동남서를 주축으로 만든 단체로,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 백석대학,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해환경감시단 7개기관 1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계도 활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여름방학을 유도하고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및 코로나19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각 기관별 소그림으로 점검 인원을 편성하여 음식점·편의점·PC방·노래방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청소년범죄예방 리플릿 및 홍보물품도 배부하였다.
백남익 경찰서장은 '청소년치안공동체 울타리'의 활동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아 신학기(2학기)·수능전후·연말연시·동계방학 등 적절한 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라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7개 시군 10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단속기간은 8월 27일까지다.
전북도는 시·군 건축과, 식품위생과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기타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세차 등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전북도는 단속결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1회성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



리할 계획이다.
1차 고발조치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미시, 제102회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로

구미시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전 성공적인 개최의 일환으로 2021. 7. 28부터 시민운동장 주변 신시로, 송정대로, 박정희로 일원 약 3.5km 전주 270여개 부착방지제 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에 붙는 부착광고물은 한 번 부착된 후에는 깔끔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이 되며 또한, 잔여 광고물이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시(市)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광고물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도로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구미시는 제102회 전국체전의 손님맞이를 위해 급양산로·월남로 일원, 임은길 일원 총 2개 지역의 간판개선사업, 200여개의 무주·노후 간판 철거사업, 원평동 구도심 2번도로 1,000여개의 간판 안전점검, 1.6km의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3.5km의 불법광고



물 부착방지제 도로 등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도 인한 주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미관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 오고 싶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주택가 주변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

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 (화물, 버스)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1일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시작으로 7월 23일 까지 주거 밀집 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중 불법 밤샘주차로 인하여 안전위험 민원이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를 한 차량 36대 (건설기계 20, 화물 12, 버스 4)를 적발했다.
특히,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차와 사업용 화물, 버스 불법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 시 건설기계는 횡수에 따라 5~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물차와 버스는 횡수에 따라 20~3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녹지공간 내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운행에 칼을 빼고 나섰다.
28일 군은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로 신도시 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 보호를 위해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도시 내 공원 과 녹지공간을 불법으로 점령하여 운행하는 이륜차로 군은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최인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내포신도시 주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 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명시, 시개청 40주년 기념 '광명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고양시,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 걱정 덜어준다

우수작품 시민체육관, 평생학습원, 도서관에 순회 전시 및 시정 홍보 활용



광명시는 시 개청 4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 광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고자 '광명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명 최고의 쉼터 안양천의 낮과 밤의 모습,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 슬로건을 주제로 한 작품, ▲문화·예술·체육 행사, ▲광명의 사계 등 광명시를 소재로 한 자유작이면 참여 가능하다.

흑백, 컬러 모두 가능하며 작품크기는 가로 11inch, 세로 14inch이면 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이어야 하고 1인당 4점 이하로 제한한다.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면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작품을 광명시청 홍보담당관 사진 미디어실(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 1층)로 제출하면 된다.

다. 광명시는 작품성, 독창성, 홍보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예비심사, 2차 시민 참여 길거리 투표, 3차 사진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입선 30명 등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입선 10만원씩 총 13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한다.

선정된 작품은 10월 18일부터 시민체육관, 평생학습원, 도서관에 순회 전시할 예정이며 시정 홍보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명시가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시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고양시가 관내 3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고양시 긴급시간제돌봄 보육"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가정보육이 증가하며 아동을 돌보던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임원을 했을 경우, 관혼상제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만한 곳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취업 준비를 위해 매주 일정한 시간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 육아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부담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들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긴급시간제 돌봄 보육을 제공한다. 긴급시간제 돌봄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운영된다.

시간제 돌봄의 제공하는 기관은 고양시립일흔어린이집, 고양시립백석어린이집, 고양시립대화소망어린이집 3개소로 고양시내 3개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육시간은 평일(월~금) 9시~12시, 13시~17시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하루 전 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아나 보호자가 열이 있거나 환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에 방

문한 경우 등은 긴급시간제 돌봄 보육을 이용할 수 없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아들의 가정보육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고양시 긴급시간제돌봄 보육을 추진하게 됐다. 긴급돌봄 사업이 갑작스럽게 보육의 사각지대 놓인 고양시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하남시 김상호 시장, 농업발전 유공자에 표창 수여



목반연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농경에 힘써 왔으며, 시 특산물인 부추 재배 활성화와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에 이바지했다.

유용, 박진언 수상자는 시가 지역농협과 연계해 진행 중인 화분 지원, 인공산토 지원 등 농업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기여했다.

표창을 받은 이광우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으며, 황성용 지부장도 "현장 최 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에게 이번 표창은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함께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농업 분야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박강호/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 및 콤팩트 등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9)'에 따르면, 국내 농업기계로 발생하는 조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1,235

(약 1,992톤)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농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 발생에 주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농기계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콤팩트(경유 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한다.

또한, 보조금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의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은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고양시 행신1동, 폭염 대비 원기회복 보양식 지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대구시, 코로나前 발로 뛴 대구관광 마케팅, 태극 드라마 흥행으로 결실! 코로나19 이후 대구로 발길 이끄냐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태극 공중파 방송, 인기리에 종영된 TV 드라마 '프라우목'에 코로나 이전 대구·경북의 일상과 가을풍경 담겨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태국을 직접 방문해 펼친 대구·경북 공동 관광마케팅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태극 TV드라마 '프라우목'이 지난 5월부터 현지 지상파 채널을 통해 약 2개월간 방송, 흥행을 거두며 종영됐다.

태극의 인기스타 부아 나린뎀(Bua Nalinthip, 여자 주연배우)과 폰 나와쉬(Pon Nawasch, 남자 주연배우)의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된 '프라우목'은 여주인공 '프라우목'이 진실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청춘 로맨스 드라마로 대구의 ▲동성로 ▲근대골목 ▲김광석거리 ▲디아크 및 경북의 ▲경주 황리단길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주여자지구 핑크몰리 등 11월의 대구와 경북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곳곳에 담아 태극 안방에

송출됐다.

이 드라마에 코로나 이전의 대구·경북의 일상과 가을풍경이 담긴 것은 지난 2019년 5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대비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태극 현지 홍보활동을 하며 이끌어낸 결과로,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함께 드라마 촬영지로 대구·경북을 소개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11월 해당 드라마 촬영일이 대구를 방문, 촬영이 이루어졌다.

당초 2020년 방영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제작기간이 지연돼 올해 5월 10일 첫 방송이 이루어졌고, 회당 방국 최고 TV 시청률 4%대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1위, CH3 PLUS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채

널을 통한 누적 시청조회수 4천2백만회로 채널 내 드라마 순위 1위, 회차별 유튜브 평균 50만회 시청을 기록하는 등 태극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도 방영됐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가 2021년 5월 실시한 '해외 주요 관광시장 대구관광 인식 실태조사'에서 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의 대구여행 관련 인식 변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인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태국은 '트래블버블' 체결 시 대구를 적극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인식개선이 드라마 인기

에 힘입어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대구로 이끌 수 있도록 대구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협업을 통해 프라우목 주연배우가 출연하는 'Following Praomook Footprint(가제)'를 기획, 드라마 촬영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대구의 음식, 쇼핑, 관광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CH3 Plus OTT 채널을 통해 8월 이후 선보일 예정이다.

박상철 대구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유행 전 대구를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현지에서 방영돼 감회가 새롭다"며,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할 순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태극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관광시장의 잠재관광객들에게 대구의 브랜드를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이름은 '송문대'

신라시대 왕실도서관 · 관리하고 동궁의 교육 맡았던 옛 관청 이름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의 이름을 '송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문대(崇文臺)는 학문(文)을 숭상(崇)한다는 의미로, 신라시대 왕실도서관을 보관·관리하고 동궁(東宮)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또 신라시대 명필(名筆)로 손꼽히

는 요극일(姚克一)이 송문대의 관리였다는 기록을 통해 송문대가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학문 연구 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은 고대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를 통해 확인됐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자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의 이름을 송문대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립 중인 송문대는 경주시 향남동 407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75억원(국비70%·지방비30%)을 들여, 연면적 2,370m², 지상 1층 규모로 시설 내부에는 출토유물 전시관, 세미나실, 수장시설,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문대가 교촌마을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 경관을 고려해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계안이 채택됐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이 시설이 개관되면 신라왕궁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시와 연구 성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신라왕궁 출토유물 전시관'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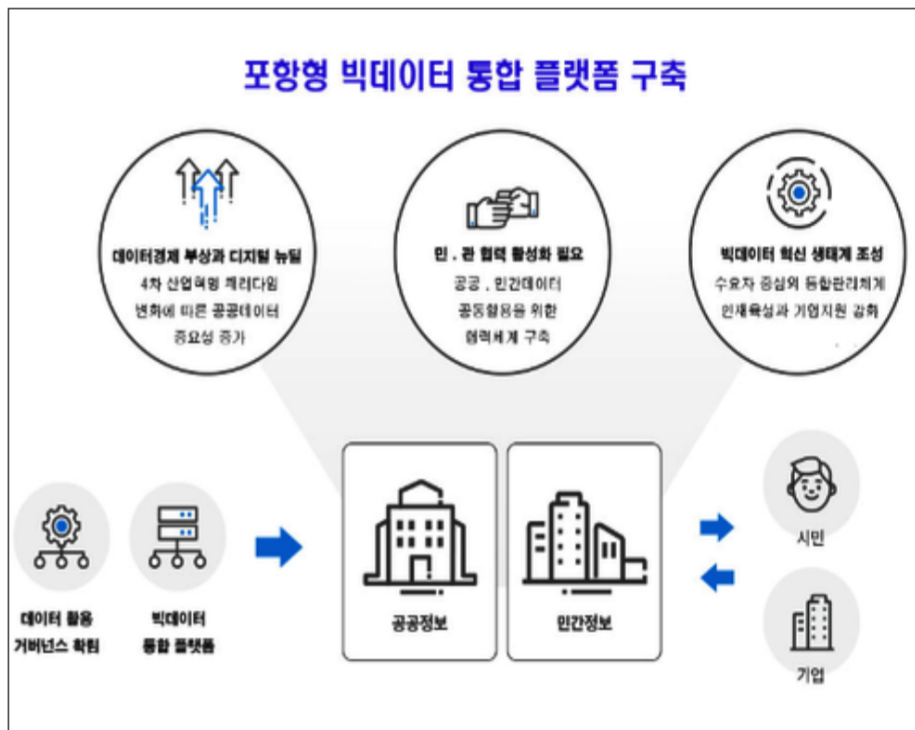
시설 운영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맡는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월성 발굴조사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연구 및 출토 유물 수장 시설의 필요성은 물론, 출토 유물의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송문대가 개관하면 교촌한옥마을과 월성고 주변 경관이 크게 개선돼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포항형 빅데이터 프로젝트 대항해의 뜻을 올린다

전국 최초 민·관 협력 기반으로 '데이터산업 메카 도시'로 육성



포항시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 기반의 '포항형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산업 메카 도시'로 도약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자와 영상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국가와 도시,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또한 2025년까지 데이터팀 구축에 50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기반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19조 2,736억 원에서 오는 2025년 43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인력현황은 지난해 36만6,021명이거나, 향후 5년 내 총 1만2,114명이 추가로 필요해 인력 부족이 예측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성장세는 높게 평가된다.

이에 포항시는 민·관 협력 빅데이터 혁신기반 데이터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4대 추진 전략은 △빅데이터 추진 체계 확립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연계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산업 발전체계 마련이다.

15대 세부 추진과제로 △민·관 협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추진 협의회' 구성 △빅데이터 전문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체계 확립 △공공데이터 표준화/재정비 및 데이터 이터 수집 및 공동 활용 촉진 △빅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개최 등이 적극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포항시는 공공·민간이 보유 또는 생산 가능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해 사회 각 분야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형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전국 데이터센터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확립해 개별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데이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해 정책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하는 등 부서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교육센터 운영으로 공무원 행정역량을 강화하며 기업과 시민들의 활용교육도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를 데이터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이 가능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쌈머축강스' 김천상무, 부천전 흥경기 이벤트 팡팡

김천상무가 부천FC와 흥경기에서 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31일 오후 8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1' 23R 부천FC와 흥경기를 치른다. 무더위를 날리기 위한 '쌈머축강스' 컨셉으로 김천은 흥경기에서 다양한 팬 프렌들리 행사를 진행한다.

무더위 해소를 위해 김천상무는 선착순 500명에게 입장 시 부채를 증정한다. 전 관중에게는 응원용 클래퍼를 제공한다.

동문 앞(가변석 A, B 사이)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 종료 이후까지 포토 판넬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직관인증 이벤트 존에서 촬영 후 경기 당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직관인증이벤트 #쌈머축강스 #김천종합운동장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면 5명을 선정해 조규성 친필사인 플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한다. 조규성 흥경기 미출전 시 선수가 변경될 수 있다. 당첨자는 김천상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하프타임에는 전광판을 활용한 '맞해보유용' 이벤트를 실시한다. 막내라인 김주성-권혁규가 출연해 청기백기 대결을 진행한다. 이어 선수단 이미지 문제, 후원의 집 관련 영상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정답자에게는 2021 시즌 사인볼을 증정한다.

동서웰빙과 함께하는 첫 골의 주인공 맞이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천상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경기 시작 전까지 댓글을 남기면 당첨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블루베리 즙을 증정한다.

경기 시작 직전에는 승리의 클래퍼 타임을 실시해 장내 아나운서의 육성에 맞춰 클래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반전 팬들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로제니아 호텔 숙박권, 고씨공방에서 제공하는 미니장구, 경북여성예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천연 디퓨저, 눈사랑 안경 렌즈베리 김천점 선글라스 교환권 및 할인권, 김천방짜유기 티스푼·포크 세트, 김천 풋살 경기장 풋살장 대관 이용권, 꽃을 담은 공방, MIEL 공방 체험권, 우각 한우촌, 우천냉면, 오단이 꼬마김밥 신음점, 우미관, 파스타바니타, 어사출도 신음점, 왕언니 보리밥, 청산고을 식사권, 정

원 능이백숙 누룽지백숙 분점 식사권, 동지툃밥 교동 식사권, CU 환산로점 상품권, 묘맛에 커피 교환권, 뚝방 커피&디저트 커피 교환권, 엔제리너스 김천부곡점 스무디교환권, 파리바게뜨 톨케익 교환권, 김호중 앨범 CD까지. 다양한 경품을 후반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경품 추첨 이후 전광판에 경품 당첨자를 표출하며 김천상무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 당첨자 번호를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31일 부천FC와 흥경기는 TV중계 IB스포츠, 온라인 중계 네이버TV, 다음 카카오,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된다.

김세기기자

대구 남구청, 평생교육협의회의 개최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7일,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앞으로 남구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구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년의 임기동안 위원들은 남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생교육사업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자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을 도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1년 남구 평생학습 추진사업 및 국정 주요사업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기관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구 평생교육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우리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평생교육협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전남도, 향우에게 '전남사랑도민증' 발급한다

27일 시·도 향우회와 발급 협력협약... 애향심 고취·고향 발전 견인 기대



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왕인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12개 광역시·도 향우회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업무협약을 하고 1호 도민증을 전달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중 전남도의장,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성광화 재부산호남향우회장, 양승권 재대경북호남향우회장, 김영호 재울산호남향우회장, 김포중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전정순 재충남호남향우회연합회장, 김창재 재경남호남향우회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지원과 향우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시·도 호남향우회는 향우를 대상으로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홍보와 신청서 접수·이송·교부를 지원하는 등 도민증 발급에 공동 협력한다.

'전남사랑도민증'은 전남 발전에 헌신한 출향 향우에게 예우와 함께 전남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급한다. 이날 각 시·도 향우회장에 1호 도민증을 전달했다. 도민증은 등록기준지(구 본적)가 전남이거나 둔 적이 있는 향우와 배우자·직계비속이 발급 대상이다.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우편(전남도 자치행정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남사랑도민' 소유 향우는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숙박·레저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 도내 70여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휴양을 비롯한 전남 방문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민증을 소유한 향우의 애향심 고취와 도민의 향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해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깊은 애향심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성원한 향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향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준 향우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전남 발전을 견인하고자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기세가 사그라들면 향우들께서 더 편안하게 고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안기자

강진중앙로상가,

팔도장터 명물 보따리 판매지원사업 선정

KORAIL x 팔도명물보따리
강진중앙로상가 특별패키지 상품 판매
 8월 10일 (화) 오전 10시 ~ 밤 12시
 2021년 8월 10일 단 하루!
 공영쇼핑 쇼핑몰&앱에서
 강진중앙로상가 특화상품 특별패키지(6만원)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5만원으로 돌려받아요! (9/3 지급)

강진군은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관광개발이 추진하는 '팔도장터 명물 보따리 판매 지원사업'에 강진 중앙로 상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전통시장 중 5곳을 선정해 각 장터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품으로 보따리를 만들어 제작·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시장으로의 재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강진군 명물 보따리는 강진채빵, 스무디밀, 동백오일, 한입전병으로 구성되며, 판매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온라인 공영쇼핑에서 1,000명을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중앙로상가는 2018년 특화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되고, 2019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도 선정돼 지난해까지 △특화거리 조성 △강진품에 마켓운영 △스마트상가 구축 △상인동아리 운영 △행사이벤트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2년간 총 8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상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다양한 상품이 전국으로 소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상품 판매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민음 온라인몰, 강진품에마켓 등에서도 강진의 다양한 특화·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장길기자

완도군, 여름 휴가철 '다 함께 잠시 멈춤 운동' 전개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거센 상황에서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다 함께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한다. '다 함께 잠시 멈춤 운동'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 만남 자제를 요청하고, 특히 향우들의 고향 방문을 잠시 미루어 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사회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 곳곳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들의 발걸음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최근 완도군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를 보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섬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군은 초긴장 상태이다. 또한 타 지역 확진자의 방문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에 여름 휴가철 '잠시 멈춤 운동'을 통해 확산세를 꺾고자 군수가 직접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향우회 또한 전국 향우회장 공동 명의의 호소문을 30만 향우에게 보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 특성에 맞는 여름 휴가철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하여 대합실, 여객선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며 촘촘한 방역망을 갖출 계획이다. 여름휴가 기간과 추석 명절에 별초를 위한 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별초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만남,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영욱기자

무안군,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

2021년 하반기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모집

- 모집기간: 2021. 8. 9.(월) ~ 8. 13.(금)
- 신청자격: 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 및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등)
- 지원규모: 6개소 내외 / 건당 최대 1,000만원
- 사업내용: 무안읍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하다고 군에서 인정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업유형(예시)

- 모임: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 주거: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 문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 경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 기타: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원지역

- 지역: 무안읍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서 신청가능,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무안읍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무안읍청 지역개발과)
- 지원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동의서, 참여 서명부 등
- 문의처: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www.muansur.or.kr) 홈페이지에서 상세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전화: 무안읍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061-450-4197) / 무안읍 도시재생지원센터(061-452-8840-2)

무안군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2021년 하반기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무안군에 주소지나 거주·생활권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이며, 단체들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복지·경제 등 여러 분야의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총 6개 단체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사업비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군청 지역개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화 논의 등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군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그룹화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주민 참여 실행계획서 작성 등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조기석기자

국민정책디자인단, 광산구 '휴블린스' 완성도 높인다



국민정책디자인단, 광산구 '휴블린스' 완성도 높인다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3대가 귀농해 예산군에 살고 있어요!”

예당호 출렁다리와 농촌 환경에 매료된 유경민 씨 가족

부모님과, 본인 내외, 자녀들까지 3대 모두가 예산군에 귀농한 가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및 농촌 환경에 매료돼 예산에 거주하게 된 유경민(42) 씨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던 유씨는 직장 관계로 지난 2014년 내포 신도시에 이사를 오게 됐으며,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매료돼 부모님을 설득해 3대가 함께 예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허브농사를 짓게 됐다.

특히 유씨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중인 '청년창업농'과 인연이 되면서 응봉면에 정착했다.

유경민 씨의 어머니 이순덕(65) 씨도 지난 2016년에 귀농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들의 영농정착에 큰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씨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중인 '청년창업농'과 인연이 되면서 응봉면에 정착했다.



정연(38) 씨도 허브농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유 씨의 아들인 유준서(14) 군과 유준원(12) 군도 함께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유 씨 내외, 아들

들까지 3대가 모두 예산군민이 됐다는 설명이다.

유 씨 가족은 귀농 초기 파리고추와 타이바질, 레몬바질, 공심채 등 동남아 채소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

하다가 판매목표가 확실한 허브를 주 작목으로 선정하고 현재 시설하우스 2000㎡에서 허브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 생산 중인 허브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유씨는 예산군내 시설하우스 외에 제주도 소재한 노지 7500㎡ 농지에서도 허브를 재배 중인데 예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물 관리 등을 하는 등 스마트농업 환경에도 한 발 앞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유씨는 예산군청년농업인협회 사무국장을 맡는 등 관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유경민 씨는 “앞으로 꽃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춘 농가카페를 조성하고 싶다”며 “직접 생산한 라벤더를 이용해 예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해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경북초등생, '코딩프로젝트 챌린지' 1등 수상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쾌거



경상북도는 '2021년 SW(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코딩프로젝트 챌린지'에서 경상북도 팀이 1위로 선정돼 2년 연속 과기정통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SW 미래 체험 센터의 초·중등 학생이 SW 강사와 한 팀을 이뤄 이야기 속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다했다. 전국 10개 지역 총 30여 팀이 참여했다.

경북에서는 '경북 SW 미래 체험 센터'의 오영숙 강사와 포항제철 지역초등학교 이예준, 장민준, 최민성 학생이 한 팀(네버엔딩)을 이뤄 전체 1위에 올랐다. 지역에서는 총 3개 팀이 참여했다.

네버엔딩 팀에서는 거짓말 같지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화로 그려낸 '거짓말 같은 이야기(강경수, 2011)' 책을 읽고 ▷어린이 인권 ▷자연재해 ▷전쟁 등 재난 상황에 있는 전 세계의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엔트리 코딩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신호를 잡을 수 있다고 오영숙 교사와 함께 재난대비·의료·경제 지원 미션 등으로 구성됐

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토론하며 멘토 강사의 도움을 받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박인환 경상북도 4차산업 기반과장은 “2년 연속 챌린지 수상을 통해 지역 SW 미래 체험 센터 강사들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입증됐다. 앞으로도 우수한 SW 강사를 지속해서 배출하고 다양한 SW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더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경북 SW 미래 체험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20~22년) 도와 포함 테크노파크(경북SW진흥본부)가 지역의 SW 교육의 불균형 해소와 SW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포항시와 안동시 두 곳에 SW 미래 체험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주요 수행사업은 ▷SW 체험 프로그램 운영 ▷SW 전문가 양성 ▷단계별 SW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있다.

지난해 SW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미취업 청년(17명), 경력단절 여성(32명), 퇴직전문가(4명) 등 100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는 80명의 SW 강사를 채용 또는 위촉할 계획이다.

김세기기자

합천 역대 영재팀, 연승대항전 우승

합천 '최강 영재' 문민중, 5연승으로 역대 영재팀 우승 견인

합천군은 26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합천 역대 영재 vs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최종 국에서 문민중 4단이 169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오유진 7단을 꺾고 역대 영재팀에 우승을 안겼다고 밝혔다.

7·9회 하찬석국수배 영재 최강전 우승자 문민중 4단은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7단을 상대로 줄곧 유리한 형세를 유지하다 중앙 승부처에서 정확한 수읽기로 마무리하며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여자 정상팀 선봉 조승아 3단이 이연 3단, 현유빈 4단을 차례로 격파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역대 영재팀의 세 번째 주자 문민중 4단이 조승아 3단의 연승을 저지하는 등 대회 최초 5연승에 성공하며 역대 영재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대회 후 인터뷰에서 문민중 4단은 “이렇게 많이 이길 줄 예상하지 못했다. 형들의 응원 덕분에 편하게 둘 수 있었다”며 “세계대회 활약 등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5명 단체 서바이벌 연승대항전으로 치러진 역대 영재 vs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은 2019년 여자 정상팀의 초대우승 이후 2020년, 2021년 역대 영재팀이 연달아 우승하며 2:1로 역대 영재팀이 앞서게 됐다.

합천군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합천군의회와 합천군체육회·합천군바둑협회가 후원하는 2021 합천 역대 영재 vs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은 우승상금 2000만원, 준우승 상금 500만원이다.

최광용기자



도봉구 이동진 청장,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출연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역MBC 16개사에서 공동기획한 자치분권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에 출연했다. 본 특강은 총 10회로 편성되어 매주 한편 씩 지역 MBC 채널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다.

자치분권대학은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저변확대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운영 중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은 현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4월 15일 자치분권대학의 초대 총장에 취임한 바 있다.

7월 22일 진행된 촬영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이성문 부산 연세구청장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이성문 구청장의 '범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강연에 이어 패널 간 토론이 이

어졌다. '지방자치와 단체장의 역할'의 주제 토론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협력할 때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소신 작전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소회와 대응현황 재정분야에서의 분권 확립 중요성 등 자치분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촬영은 10회 방송 중 9회 방송분이며, 8월 중 지역MBC 채널 통하여 약 1시간 분량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기존 방송영상 및 방송 후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고양시 중산동,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LED 조명 후원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동명테크에서 음성인식 LED 조명을 후원받아 전달식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김경희 도의원, 조현숙 시의원, ㈜동명테크 정동준 대표, 중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동명테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인식 LED 조명 14개를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명테크 정동준 대표는 “요즘 같이 힘든 때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나눔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음성인식 LED 조명은 음성만으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중산동장은 “우리 동을 위해 나눔을 해주신 정동준 대표님께 감사 드린다. 후원해 주신 음성인식 LED 조명은 꼭 필요하신 분들께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 성심껏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번에 중산동에 기탁된 음성인식 LED 조명은 관내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에 중산동 찾아가는복지팀과 중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1위 수성' 천안시축구단, 연승의 비결은 김태영 감독의 #One team



천안시축구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24일 팽택전 4-1 승리로 리그 중반이 지난 현재,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쉽지 않은 난관들이었다. 올해로 2년째 사령탑을 맡은 김태영 감독은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승리의 키워드인 #One team을 팀에 녹여내 조직력을 완성시켰다.

올 시즌 천안의 함해에 항상 순풍만 불었던 건 아니다. 리그 초반 무패를 이어가던 무승의 늪에 빠져 중위권을 헤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태영 감독은 “잘한 건 모두 선수들 덕분, 못한 건 다 감독의 준비가 부족한 탓이다.”라며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격려하며 극복했다.

또, 위기의 순간마다 과감한 선택으로 위기를 빠져나오기도 했다. 측면 수비수인 오현교를 측면 공격수로 감쪽 선발 출전시켰고 부상으로 인한 전력 이탈을 현명하게 극복했다. 올 시즌엔 34명의 선수 중 약 88%에 해당하는 30명의 선수들이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과감한 용병술과 부상으로 인한 전력 이탈을 두터운 백업 자원과 한부성(선문대), 이태훈(KC대), 최광(동진고)

등 신인들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뚜렷한 주전선수 없이 매 경기 가장 좋은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에게 출전의 기회를 부여하며 경쟁을 통한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심어줬고 그 결과 과감한 선택에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천안의 '1위'라는 높은 성적보다 더 값진 건 '결과'다. 리그 17경기에서 28득점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고 14실점으로 최소실점 1위 목표, 김포(12실점)에 이어 3위를 지키며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잡았다. 다 같이 한 발 더 뛰어서 만들어낸 빠른 공수 전환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만들어낸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예년과는 달리 결과와 과정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김태영 감독의 노력으로 #One team이 뿌리를 내렸고 홈 3연전 전승과 함께 꽃을 피웠다. 하나 되어 이룬 3연승이 큰 원동력이 되어 전반기를 2위로 종료했고 이젠 1위에 올라 올 시즌 목표인 4강 플레이오프 진출, 그 이상을 향해 쾌속 순항 중이다.

김원호기자

박형준 시장, "구덕운동장재개발로 15분 도시 서구 조성의 첫걸음 떼자!"

이어 10:30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공한수 서구청장, 지역 주민 30명과 15분 도시 정책 관련 의견 나누

"레저와 주거가 공존하는, 삶의 임팩트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 서구의 열! 그레이트는 15분 도시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27일 10시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의 세 번째 방문지로 문화관광의 도시 서구를 찾았다.

박 시장은 행사에 앞서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을 찾아 15분 도시 생활 SOC 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구덕운동장을 시민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덕운동장은 건립 50여년을 맞이하고 있어, 부산 100년 근대사와 부산체육의 변천사를 함께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시 대표 스포츠 시설이나 시설 노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시민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복합개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체육·여가·휴식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청 다목적홀로 장소 옮겨 공한수 서구청장, 15분도시 정책 공감단 등 서구민 3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15분 도시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행복토코를 통해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복토코는 시민 안전을 최우

선으로 운영 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허용 범위보다 작은 30명의 구민이 참여하였고, 오프라인 대화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주민은 줌(Zoom)을 활용, 온라인을 통해 대화에 참여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복토코에서 "서구는 피난 수도와 야미동 비석마을, 동대신동 달밭골 등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라며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전국 1위의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가진 산업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서구가 가지고

며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15분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공공교통망 확충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이동 수단의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 이처럼 시민 여러분께서도 15분 도시 정책에 시민 한분 한분의 행복이 담겨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권역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주민들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노래이 조성사업 지원,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지원, 동대신동 보동길-망양로 간 연결 회전식 도로개설, 대신공원 구덕민속예술관 리모델링, 야동 거주 비율 높은 곳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야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원도심지역 마을지기사업 활성화, 미세교통망 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송도선 트램 추진, 천마산 중북도로 운행 마을버스 도입 등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부산시는 먼저 방문했던 사하구, 영도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구·군에 대한 비전 투어를 순차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구·군 비전 투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과의 협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평택시, 대한민국 최초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구축



평택시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에 따른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는 수소특화단지, 수소도시, 수소항만 이 융합되어 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평택항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연관 산업이 집적되는 복합지구이다.

시는 미세먼지 수준이 높은 평택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수소 복합지구 조성엔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 3년간 수소생산시설 사업, 평택항 수소교통복합단지 사업, 수소생산 국산화기술개발 사업 등 5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총 1,1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총 22개 기업 및 기관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 관련 기업들과 함께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 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투자협약」을 하게 됐다.

평택수소특화단지(산업단지)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GS칼텍스 등 16개 기업 및 기관들이 2024년까지 6,400억 원을 투자해 수소생산 및 액화, 연료 전지발전, 장비제조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수소특화단지에 수소생산시설이 준공되면 kg당 4천원대의 수소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경유차 연료

비보다 훨씬 저렴해 평택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항만에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벌비스, 한국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업 및 기관들이 2040년까지 트럭, 선박 등에 대한 수소전환 실증 및 보급사업, 그린수소 도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평택항 배후도시는 수소특화단지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교통, 산업, 상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 개별건물에 연료전지가 설치되고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 대신 수소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수소특화단지에서 공급되는 냉·온열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수소에너지와 미래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남경영/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난해 사회적 가치 1조9천억 창출

성과 측정 정례화,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성과지표 발굴 등 지속 노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가 지난해 1조8,897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 이행에 앞장설 계획이다.

SH공사는 2020년 경영활동과 추진 사업을 통해 거둔 사회적 가치 성과가 1조8,897억원으로 평가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통계청·국토부 자료와 SH경 영실적보고서 등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대상으로 화폐화 측정 표준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호서대학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자문과 검증의견을 반영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SH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경영목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시민, 공동체, 지구환경 등을 핵심으로 2019년과 2020년 2개년도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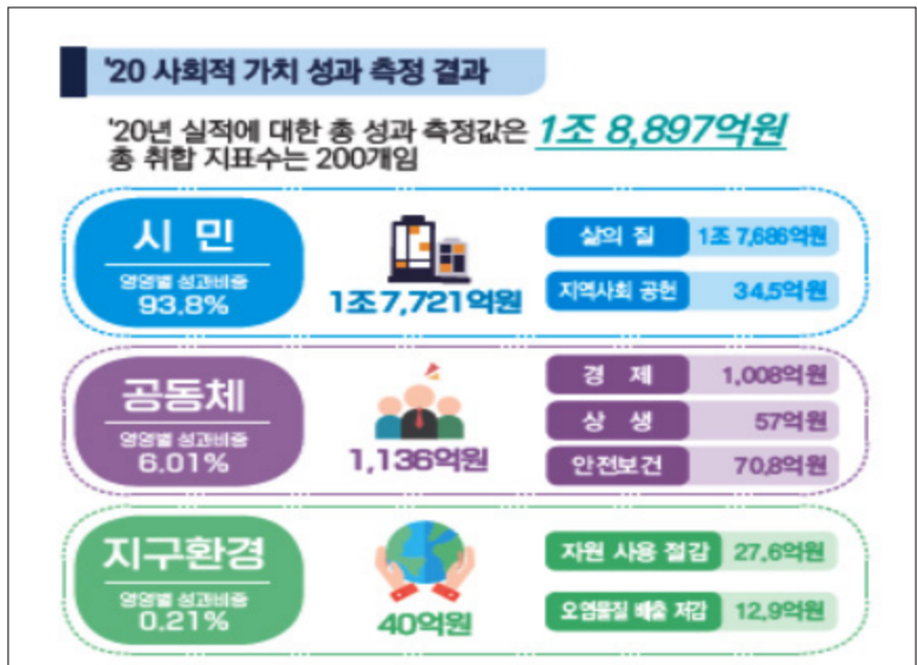
측정 결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시민 영역'에서 가장 많은 1조7,721억 원(93.8%)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영역'에서 1,136억 원, '지구환경 영역'에서 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이행해 총 1조8,897억원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SH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성과를 평가한 결과값인 1조4,165억원에 비해 33.4%(3년간 연평균 16% 증가) 증가한 수준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SH공사는 앞으로도 관련 성과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SH공사는 앞으로도 경영·사업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경제적 가치보다 시민의 행복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을 정례화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는 한편 지구환경 분야 성과 값 향상을 위해 성과측정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과측정 보고서를 전 직원과 공유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경남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할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개소

27일 경남연구원 1층,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개소식 개최



경상남도는 경남의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의 중심이 될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가 27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문철 도의원을 비롯해 경남형 공영대학(ug)으로 지정된 도내 3개 대학의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기간산업의 스마트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등 도정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월 경남연구원과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경남연구원 내 1층에 위치하며, ▲빅데이터 분석 환경(공간, 분석틀 등) 무료 제공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상시 분석 ▲빅데이터 전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해 도민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기반 연구 또는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에서의 전문교육 수요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여 데이터 활용 대변화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도민에게 무료 상시 개방되며 도민의 센터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핵심 요소 기술인 빅데이터를 민간, 행정, 산업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남의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iH공사,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출범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위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전사적 대응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 자체 기구로서, 공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법률, 도시재생, 주거복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된다.

위촉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은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아 갈등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갈등관리는 사업과정에서 민원 등 부대업무가 아닌 원가관리, 품질관리와 같은 주업무가 되었고, 특히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시민 소통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경북도, '2021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래거

경상북도는 행안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3개 시군(영양군, 성주군, 예천군)*이 선정돼 국비 9억 원(총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9개 사업을 신청해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7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경북도는 3개의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간판개선사업은 낡고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노후 불량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5km 구간 내 34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김세기/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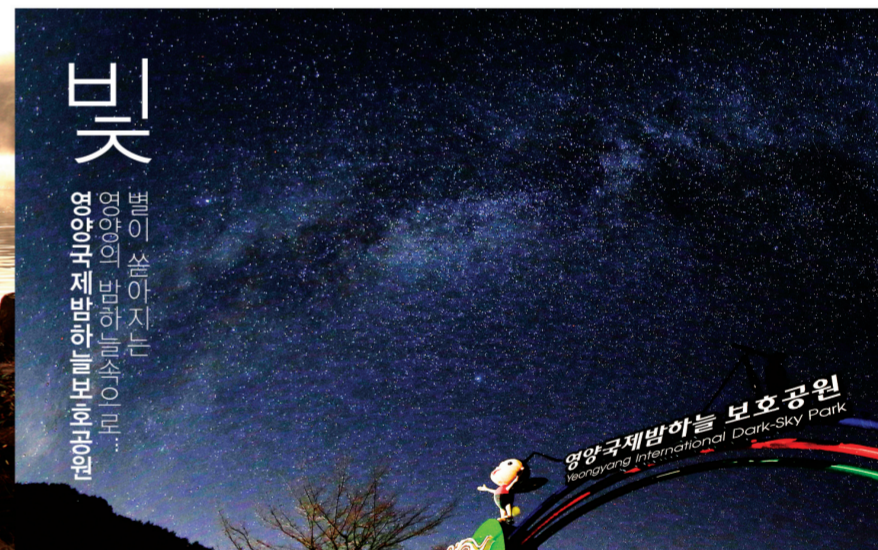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살과 숨이곳에서
하그네 오렌지길...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물
영양의 변화와
스메디에세 건국...
정호포 취피전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정호포 정호포 정호포
영양서석지



맛
사뻐넬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소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